

'e-공매' 재테크 창구로 뜬다

광주·전남 올들어 캠프 압류 재산 352건 낙찰 故 정주영회장 헬기도 매물...권리관계 따져야



1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공매되는 고(故)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의 'BK-117B' 기종의 헬기.

▲공매 =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개인이나 기관에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 물건이 개인 채무에 의해 발생한다면 공매는 국가 기관과 개인간의 채무관계에 의해 나오는 물건인 셈이다.

지난 4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의 인터넷 공매 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에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의 임야 331㎡(100평)가 공매 물건으로 올랐다. 이 임야의 감정가는 430만3천원이지만 617만원의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12명이 경합을 벌인 끝에 낙찰가(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144%까지 치솟은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의 임야 3천173㎡(960평)가 감정가의 6.8배인 1천289만원에 낙찰돼 공매에 대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 최근 인터넷 공매가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4일 캠코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 광주·전남에서 인터넷 공매를 개시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4

천376건이 낙찰됐고, 거래금액은 901억9천만원에 달했다. 또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52건(59억8천944만원)이 낙찰될 만큼 공매시장에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다. 지역별로는 신안군 임야의 낙찰가율이 105.5%를 기록했으며, 나주도 금천·산포·봉황면의 임야 낙찰가율이 90.3%에 달했다. 광주는 광산구의 낙찰가율이 96.5%를 기록하면서 유망 물건으로 각광받고 있다. 공매 물건은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재산을 국가가 압류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물건으로는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비롯, 자동차, 골프·콘도 회원권, 주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오는 11일까지는 온비드를 통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이 생전에 이용하던 헬기와 서울대 공원이 관리하던 반달가슴곰에 대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5일 아파트, 토지 등을 중심으로 150여건, 87억원 규모의 지역 내 압류재산 물건에 대한 공매가 실시된다. 공매는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참가가 가능하다. 입찰 기간이 보통 2~3일 정도여서 매수 물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또 입찰보증금은 10%로 인터넷 뱅킹이나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납

부할 수 있으며, 유찰했을 경우 자동 환불되는 편리성도 갖추고 있다. 대금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7일 이내, 1천만원 이상은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어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 입찰의 경우 낙찰자가 금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입찰전 매수물건에 대한 현장 방문도 필수적인 절차라는 게 캠코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공세복합단지 일원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조인식



대주건설 용인시에 학교 무상 기증... 대주건설은 4월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교육청에서 자사 임원 및 용인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교육청과 '학교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용인 공세지구에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초등학교를 설립해 용인시에 무상기증키로 했다. 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 지정환 용인시교육청 교무장, 이영춘 대주건설 사장, 노상진 용인공세지구 입주주회의 대표. (대주건설 제공)

對日 수출기업 "환율 안정 시켜달라"

100엔당 760원 추락... 채산성 악화 수출 포기 속출

원·엔 환율의 하락세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對)일 수출기업들이 정부에 환율안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체들의 경우 원·엔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채산성이 악화돼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했고, 심지어 대일 수출을 포기하는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 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산자부와 무역협회,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종합상사와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합동 수출대회의

에서 참석기업들은 "엔화약세로 인해 수출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정부에 환율안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2004년까지만 해도 100엔당 1천원을 넘던 원·엔 환율은 지난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00엔당 761.30원까지 떨어져 1997년 10월23일 이후 9년7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수출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올해 들어 4월까지 대일 수출 증가율은 1.1%에 그치고 있으며 원자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일본에서부터 수입이 늘어 대일 무역적자

가 4개월만에 1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형편이다. 한남산단내 A 전동기 제조업체는 "원자재가 상승에다 원·엔환율마저 떨어져 지난해보다 30% 가량 채산성이 악화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품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출혈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정부의 역할에 한계는 있지만 외환당국에 환율안정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산자부는 원·엔 환율 약세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적용하는 읍선형 환율동보보료를 80% 인하하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ilee@

비축물자 대여 이자율 0.5%P 인하 "현대전화 요금 인하 여력 충분"

조달청, 中企 구입부담 완화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원자재 비축물자에 대한 대여 이자율을 5일부터 연 0.5%포인트 인하하고, 외상방출 이자율도 대여 이자율에 맞춰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이후 주요 금융 원자재 가격이 세계경기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 유동성 증대 등으로 계속 상승했고, 특히 올 2·4분기

에는 니켈 등 일부 품목이 단기간에 급등해 최근 20년 동안 최고가격을 보이고 있어 중소 제조업체들의 원자재 구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광주지방조달청 김준수 자재구매팀장은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원자재 수급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시민단체·정치권 공론화 통화료 인하 필요성 주장

최근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요구가 공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한나라당 김화정 의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우리가 쓰는 이동전화요금 적정인가 III' 토론회에서는 현대전화 요금의 적정성을 놓고 소비자 관련 단체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소비자원 나광식 박사는 발제문에서 각각 유선통신과 이동통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의 요금 체계를 비교하며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 박사는 "기본료는 SKT가 KT보다 2.5배, 통화 요금은 9.2배 이상 비싼 수준"이라며 "이 요금 격차는 이

동통신 요금 인하를 통해 해소해야할 정책 과제로, 이동통신 요금도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박사는 "2001~2006년 SKT 요금은 9.1%, KT의 LM(일반전화→현대전화) 통화료는 23.7% 인하됐다"며 "시장 여건이 나빠진 시내전화 사업자가 오히려 요금을 큰 폭으로 내렸는데, 이를 보면 SKT가 추가로 요금을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의 요금 평균에 못미친다는 업계의 반박도 짚어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희수 연구원은 "우리 나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이라는 발제문에서 OECD에 비해 분당 통화료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수익성에서 보면 국내 다른 산업이나 OECD 가입국의 이동통신 업체들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연협뉴스

중소 중앙회 광주·전남지회 인사 노무 마스터 과정 개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본부장 강영태)는 오는 13~15일 광주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마스터과정'을 개설, 교육신청을 받는다. 광주·전남지회는 중소기업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차원에서 교육생의 3일간 인건비까지 보조해준다. 교육비용에 가입된 중소기업 임직원은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교육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에 신청하면 되며, 교육비는 무료다. 문의 (062)955-9966. /이종태기자 jilee@

뉴욕생명 직원급여 1% '사랑 나눔'

기부문화 정착 앞장

뉴욕생명 광주지점이 직원 급여의 1%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등 기부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뉴욕생명 광주지점은 지난해 9월부터 재무설계사 등 20여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매년 1%의 돈을 모아 아름다운재단 등에 기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또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등 4곳을 매달 한차례씩 방문, 청소를 해주고 함께 놀아주는 등 자원봉사 활동도 벌이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지점은 이와함께 올 연말까지 ANP(연간 신규보험가입액)를 10억원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에 나서는 한편 광주지점을 분할해 5~6년만에 광주·전남지역에 5개 지점을 추가로 개점할 계획이다. 김석 광주지점장은 "뉴욕생명은 162년 전통을 가진 외국계 보험사지만 지역에 지점이 1곳이다 보니 아직은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며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영업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고객과 함께하는 보험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光銀 연중 무휴점포 3개월새 이용객 1,000명

광주은행 연중 무휴점포인 상무 비즈니스센터 출장소가 개소 석달만에 이용자 1천명에 육박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12일 광주 상무지구 롯데마트 1층에 광주서구청 '365 민원봉사실'과 함께 문을 연 상무 비즈니스센터 출장소의 영업시간 이외 월별 이용객수는 3월

100여명, 4월 300여명, 5월 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비즈니스센터 출장소는 수도권 시중은행에서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광주·전남에서는 단 한 곳 뿐이다. 이 출장소에서는 행정·유통·금융이라는 복합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일본 직수입 구제 전문샵 (도·소매)

- 도쿄류스 남·녀 의류, 신발, 가방 외 각종 소품 다양하게 구비
 - ① 호점 : 금남지하상가 0동8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7-5355
 - ② 호점 : 광주세무서 정문 맞은편(밀리오레 옆) 062)233-5355
 - ④ 호점 :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062)265-5355
- 리틀도쿄 아동구제·캐릭터전문(의류, 신발, 가방, 우산, 실내화 등 다량구비)
 - 금남지하상가 0동9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8-1130

● 광투 히토 일본 구제 밀터샵
 ● 당신의 패션이 시작되는 곳
 ● 기성품은 변화 개성연출
 ● Nippon Style

● 희망의 품질
 ● 부담없는 가격
 ● 편안한 쇼핑

스파이더맨

파워레인저

유켄도

프린세스

슈가룬

도쿄류스 · 리틀도쿄 아름다운 당신, 오늘 꼭 한번 찾아주세요!!

로템갤러리 Gallery RODEM 직수입 안티크 전문매장

로템갤러리

가구의 격을 한층 높여 드립니다.

각종 고급 침대

● 진열상품 30%~최고70% ● 특별기획상품행사

소파

식탁

침대

의자

장롱

탁자

찾아오시는 길 1가목방면
 --백문동-- 남광주--
 삼성디지털프라자 현대자동차 미래이동행진 RODEM

대표전화: (062) 653-4022

몰류센터: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1